

한의학 교육이 의대생의 한의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손경진¹⁾ · 조임학¹⁾ · 이정현¹⁾ · 임정화²⁾ · 윤영주³⁾*

¹⁾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²⁾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신경정신과

³⁾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동서협진의학

Influences of Education on the Attitudes of Medical Students towa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yeongjin Sohn¹⁾, Imhak Cho¹⁾, Junghyun Lee¹⁾, Junghwa Lim²⁾ & Youngju Yun³⁾*

¹⁾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²⁾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³⁾ Department of Integrative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what the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are and how TKM education affects them.

Method : We performed content analysis on 283 assignments submitted by senior students who took a "TKM and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CAM)" course in a medical school in 2010 and 2011. The assignment was to write an report after reviewing a research article about "TKM or CAM" or interviewing a person engaging in a related field.

Results : 193(68.2%) students chose a article review and 90(31.8%) students chose an interview. Significantly more students chose TKM topic in interview group than in article review group(p=0.021). Most frequent questions in interview are as follows; 'comparison of TKM and western medicine'(15.7%), 'education in TKM school'(8.8%), and 'TKM and evidence based medicine'(8.8%). Among students who expressed their attitudes toward TKM, 52.4% of them showed positive attitudes before entering medical school, however, 54.6% of them showed negative attitudes in medical school years. Among students who indicated attitude change before and after the TKM course, 35.9% of them changed positively.

Conclusion : TKM education might have positive effects on medical students' attitude toward TKM. It is necessary to expand TKM education and introduce effective education strategy in order to alleviate medical students' misunderstanding and prejudice against TKM.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edical students' attitude, CAM education

• 접수 : 2015년 2월 24일 • 수정접수 : 2015년 4월 1일 • 채택 : 2015년 4월 3일

* 교신저자 : 윤영주,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전화 : 055-360-5955, 전자우편 : mdkmdyun@pusan.ac.kr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 및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CAM 교육을 의과대학 정규과정에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AM 교육을 선택과정으로 개설한 의과대학이 1998년 117개 중 75개(64%)에서 2008년에는 126개 중 113개(90%)로 증가하였다.^{1,2)} 또한 2003년 기준으로 유럽에서는 전체 의과대학 중 40%에 해당하는 의과대학에서 CAM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³⁾ 한국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41개 의과대학 중 35개(85.4%) 학교에서 한의학 및 CAM 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 34개(97.1%) 학교에서 필수과정으로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⁴⁾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AM의 정의와 분류에 따라 서구에서는 한의학이 CAM의 한 분야로 분류되지만⁵⁾ 한국에서는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대등한 공식 의료체제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 국민 의료법 제정으로 한의사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한·양방의 의료이원화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넓혀 다양한 의료를 접하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두 의료영역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⁶⁾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학 및 CAM 교육은 한·양방 상호간의 이해를 돕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의사 및 의대생을 대상으로 CAM과 CAM 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한의학 교육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고,⁷⁾ 미국의 선행연구에서 의대 교육과정 중의 지속적인 CAM 교육이 의대생들이 CAM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한다는 결과도 있었다.⁸⁾ 또한 CAM 강의를 들은 의대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CAM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⁹⁾ 한국에서 2000년대 이후 한의학 및 CAM 강의가 확대되어 현재 대다수의 대학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규 교과과정의 한의학 교육이 의대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아직 없었다. 향후 의과대학에서 진행될 한의학 교육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한의학 및 CAM 수업을 들은 후 제출한 과제물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이원화된 의료체계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한의학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한의학 및 CAM 수업이나 과제가 그들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소재 모 의과대학의 본과 4학년 수업인 '환자-의사-사회 6'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수업 과정 중에 제출한 과제물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과제물을 제출한 학생은 2010년에 140명, 2011년에 143명으로 총 283명이었다. 연구의 대상인 과제물은 애초에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것은 아니며 4시간의 CAM, 3시간의 한의학 수업을 들은 후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제출된 것이다. 2010년과 2011년의 CAM과 한의학 강의의 세부 시간표는 Table 1과 같다.

과제는 다음 두 가지 중에 선택하여 A4용지 두 장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하나는 CAM이나 한의학과 관련된 임상연구 논문을 읽고 내용 요약, 평가, 소감을 쓰는 논문 읽기 과제이고 학생들에게 논문 검색 사이트, 검색어(질환, 요법), 논문의 서지사항, 논문 선택 이유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다른 하나는 CAM이나 한의학 계열의 종사자를 인터뷰하고 인터뷰 내용과 소감을 쓰는 인터뷰 과제로 학생들에게 인터뷰 일시, 장소, 대상자 등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자료에는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유로운 기술 속에서 드러난 표현에서 한의학에 대한 의대생들의 인식과 수업 후 태도 변화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리라 판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PNU IRB_2014_13_HR)을 받았고,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도와 학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학번과 이름을 삭제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일련번호로 관리하였다.

Table 1. Timetab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CAM) Course in 2010 and 2011

	2010	2011
CAM* (4hour)	Introduction of CAM	Introduction of CAM
	Convergence of modern medicine and CAM	Homeostasis based medicine
	Biology-based therapy and mind-body medicine	mind-body medicine
	Acupuncture and physical-based therapy	functional medicin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3hour)	Fundamental concept and theor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undamental concept and theor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eory and real practic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ridian research and acupuncture therapy
	Understanding of herbal medicine	Understanding of herbal medicine
	Assignment period for 1 week	
Discussion (2hour)	Discussion based on submitted assignment	

* The formal course name was complementary integrative medicine but we unified the term as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in this research because it actually means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 Lecturers and lecture contents were same in 2010 and 2011.

2.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자료의 처리 및 분석에는 한의학 전공중인 3인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자료의 예비분석과 토의를 통해 코딩 항목과 코딩 기준을 결정했다.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협의하였으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의학과 한의학을 복수전공한 1인이 의사결정에 추가로 참여하여 결론에 도달하였다(Figure 1). 본 연구에는 자료에 대한 질적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과제에 드러난 학생들의 태도를 코딩하고 인터뷰 과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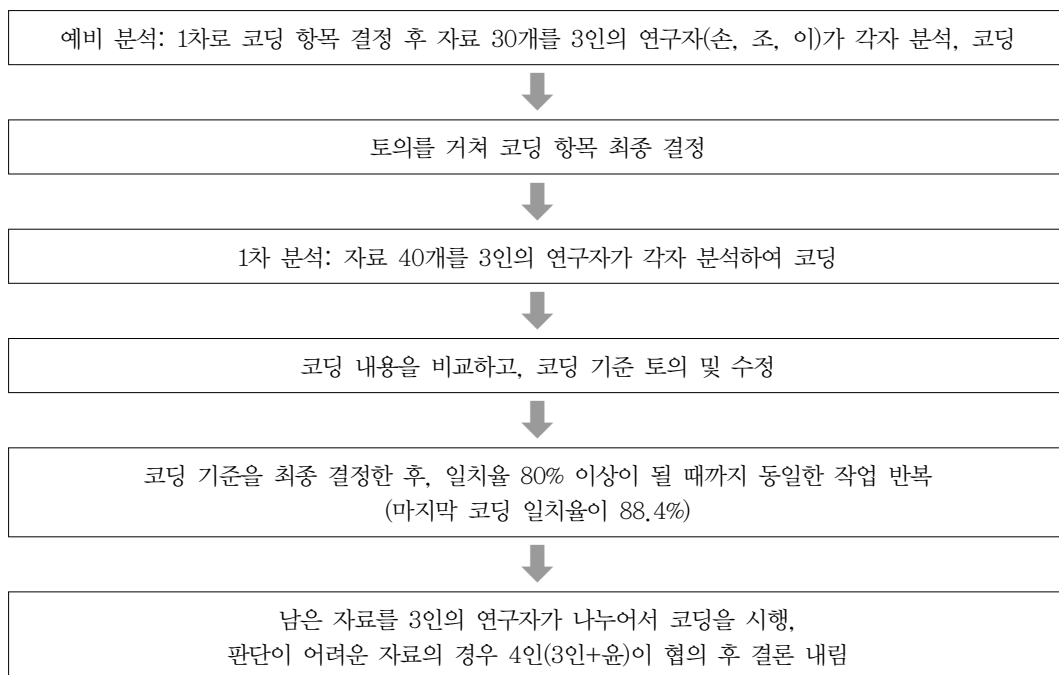


Figure 1. Process of Content Analysis and Coding

서의 질문을 범주화하는데 질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성격상 연령, 성별과 같은 일반적 특징은 알 수 없었으며 추가적으로 해당 의과대학의 본과 4학년 학생들의 학제(고등학교 졸업 후 의예과로 입학, 타 학부 졸업 후 의학과로 편입)를 구분해서 코딩했다. 연구자간 토의, 합의를 통해서 학제 구분, 수업 연도, 과제 유형, 과거 한방치료 경험, 치료 외의 경험, 입학 전 한의학에 대한 태도, 수업·과제 전 한의학에 대한 태도, 수업·과제 후 한의학에 대한 태도를 코딩하였다. 논문 읽기 과제는 ‘논문 검색 이유’, ‘검색 요법’, ‘논문의 연구 방법’, ‘검색 질환’을 추가적으로 코딩하였고, 인터뷰 과제는 ‘인터뷰 대상’, ‘인터뷰 방법’, ‘질문 범주’를 추가적으로 코딩하였다.

한의학에 대한 경험은 과거의 한방치료 경험과 치료 외의 경험으로 나누었는데 ‘한방치료 경험’은 본인 또는 지인이 경험한 한방진료와 치료 효과에 대한 기술로 정의하였고 ‘치료 외의 경험’은 논문, 책, 광고, 지인들의 말 등에 의해 형성된 한의학에 대한 태도에 대한 기술로 정의하였다. 한의학에 대한 태도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3인의 연구자가 논의를 거쳐 정립한 코딩 기준에 따라 ‘언급 없음’,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판단불가’로 나누어 코딩하였고

(Table 2), 코딩 항목과 코딩 기준을 코딩북에 작성하여 자료 분석과 코딩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태도의 변화는 ‘의대 입학 전, 후’와 ‘수업·과제 전, 후’로 나누었다. 각 시점의 전후 중 하나라도 태도가 기술된 경우는 ‘언급 있음’으로 코딩 후, 두 시기의 태도가 모두 기술된 경우는 기준에 따라 태도 변화를 평가하고 코딩했으며, 전과 후 한 시기의 태도만 언급된 경우는 태도 변화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판단 불가’로 코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통계는 SPSS soft for windows, version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적 통계인 빈도와 백분율을 주로 활용하였고, 과제 유형, 수업 연도, 학제에 따라 한의학 주제 선택여부와 태도변화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양측검정이며 유의수준(α)은 0.05이다.

III. 연구결과

1. 과제에서의 한의학 주제 선택 여부

총 283개의 과제물을 과제 유형, 수업 연도, 학제에 따라 나누어 각 집단별로 한의학 주제를 선택한 학생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논문 읽기 과제와 인

Table 2. Coding Criteria of Attitude towa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태도	기준	예시
언급없음	한의학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연구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언급이 있더라도 한의학에 대한 언급이 아닌 경우	“과학적이고 확률적으로 유의한 연구”, “침술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한 논문”
	한의학이 아니라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태도를 언급한 경우	“보완통합의학이라 하면 비과학적인 학문이라는 생각”
부정적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한의학은) 비과학적, 근거 없음, 아매성 치료, (한의학에 대한) 불신, 편견, 등한시, 거부감
중립적	부정적, 긍정적 표현의 빈도와 상관없이 두 가지 표현이 모두 언급된 경우	
	부정적 태도를 표현한 후 생각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과제를 통해 생각이 바뀌었다.”,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긍정적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존중, 가치, 합리적, 의료계의 동반자
	학문의 다름을 인정하는 경우	
	상호 보완의 필요를 언급한 경우	조화, 보완, 균형, 협력관계, 열린 마음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경우	
판단불가	한의학에 대한 태도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	“동양의학이 낯설게 느껴졌다.”, “(한의학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 경우	

터뷰 과제 수행 시 한방치료에 대한 논문을 선정한 경우와 한의사, 한의대생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의학 주제를 선택했다고 정의하였다. 인터뷰 과제를 선택한 학생집단에서 한의학 주제를 선택한 비율(81명, 90%)이 논문읽기 과제를 선택한 학생집단(152명, 78.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21$). 수업 연도별 ($p=0.051$), 학제별($p=0.812$)로 비교한 집단 간의 주제 선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2. 논문 읽기 과제를 선택한 학생들의 관심 요법 및 질환

과제로 논문 읽기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 283명 중 193명(68.2%)이었다. 논문 검색 이유를 언급한 학생 중에서는 ‘관심분야’이므로 선택한 경우가 50.3%로 가장 많았다. 검색한 요법은 ‘침’이 가장 많았고(56.0%), ‘한약’과 ‘뜸’은 각각 11.4%, 1.6%로 적었다. 검색한 논문의 연구방법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를 포함한 대조군 연구가 63.7%로 가장 많았다. 검색한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24.4%), 뇌·신경·정신 질환(21.3%), 산부인과 질환(8.8%) 순

으로 많았다(Table 4).

3. 인터뷰 과제를 선택한 학생들의 관심 및 질문내용

과제로 인터뷰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 283명 중 90명(31.8%)이었다. 인터뷰 대상은 ‘한의사’가 45.6%, ‘한의대생’이 40.0%로 한의계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 인터뷰 대상과의 관계를 언급한 학생 중에서는 인터뷰 대상이 ‘지인’인 경우가 76.0%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뷰 방법을 언급한 학생 중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인터뷰를 한 경우가 69.0%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전화’나 ‘이메일(메신저)’로 인터뷰를 진행한 학생도 있었다. 모든 인터뷰에서 수집된 질문의 합계는 477개로, 크게 분류했을 때 ‘한의학계의 현실’, ‘학문으로서의 한의학’, ‘의료로서의 한의학’, ‘의료제도 속에서의 한의학’ 순으로 질문이 많았다. 하위 범주에서는 ‘한의학과의 비교’에 대한 질문이 15.7%로 가장 많았고, ‘한의학의 교과과정(8.8%)’과 ‘한의학 연구와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8.8%)’, ‘한의학의 개념, 이론(8.6%)’에 대한 질문 순으로 이어졌다(Table 5).

Table 3. Selec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Topic by Assignment Type, Year and School System.

(N = 283)

	Division	TKM topic [†] (n = 233)	CAM topic (n = 50)	p-value
Assignment type	article (n=193)	152 (78.8%)	41 (21.2%)	0.021*
	interview (n=90)	81 (90.0%)	9 (10.0%)	
Year	2010 (n=140)	109 (77.9%)	31 (22.1%)	0.051
	2011 (n=143)	124 (86.7%)	19 (13.3%)	
School system [‡]	regular course students (n=202)	167 (82.7%)	35 (17.3%)	0.812
	transfer students (n=81)	66 (81.5%)	15 (18.5%)	

* χ^2 test, $p < 0.05$

[†] It was categorized as ‘TKM topic’ in case that a student searched TKM treatment in article review, or interview subject was TKM doctor or TKM student in interview assignment.

[‡] Regular course students mean who enters premedical school after graduating highschool (corresponding to 2+4 system), and transfer students mean who enters medical school after finishing other undergraduate major (corresponding to 4+4 system).

Table 4. Topics searched by Research Article Reviewers

N=193

Reason for article search	Not mention 28 (14.5%)	Mention 165 (85.5%)	Percent among who mention(%)				
			Interest 83 (50.3%)	own experience 37 (22.4%)	others' experience 18 (10.9%)	scientific evidence 8 (4.8%)	others 19 (11.5%)
Therapy	0 (0%)	193 (100%)	Acupuncture	Herbal medicine	Moxibustion	TKM treatment*	others †
			108 (56.0%)	22 (11.4%)	3 (1.6%)	19 (9.8%)	41 (21.2%)
Method of study	0 (0%)	193 (100%)	controlled study	Systemic review	Review	others	
			123 (63.7%)	18 (9.3%)	14 (7.3%)	38 (19.7%)	
Disease (N=193)	musculo skeletal disease	neuropsychiatric disease	obstetrics and gynecology	Allergy · Atopy · skin problem	Headache · migraine	Cardiovascular disease	
	47 (24.4%)	41 (21.3%)	17 (8.8%)	15 (7.8%)	15 (7.8%)	12 (6.2%)	
	Digestive disease	Cancer	Life style improvement	Respiratory · disease	others		
	11 (5.7%)	11 (5.7%)	7 (3.6%)	6 (3.1%)	11 (5.6%)		

* 'TKM treatment' includes acupressure treatment, hand acupuncture, and cases of using more than two kinds of treatment at the same time.

† 'Others' include CAM therapies such as aroma therapy (9 cases, 4.7%), homeopathy (7 cases, 3.6%), and chiropractic (3 cases, 1.6%).

Table 5. Interviewee Types and Question Categories

N=90

인터뷰 대상	한의사	한의대생	의사	기타*
		41 (45.6%)	36 (40.0%)	5 (5.6%)
질문 범주	하위 범주		합계 N = 477 †	
한의학계의 현실	한의학계의 교과과정		42 (8.8%)	
	한의학계 선택한 이유		23 (4.8%)	
	한의학계의 미래 발전, 전망		22 (4.6%)	
	한의학계의 진로		22 (4.6%)	
	한의학, 한의사의 위상		20 (4.2%)	
	한의학 전문분과, 졸업 후 교육과정		19 (4.0%)	
	한의사의 일과, 진료업무		15 (3.1%)	
학문으로서의 한의학	한의학계 서양의학의 비교		75 (15.7%)	
	한의학 연구와 Evidence-Based Medicine		42 (8.8%)	
	한의학의 개념, 이론		41 (8.6%)	
의료로서의 한의학	한의학의 치료, 진단법		34 (7.1%)	
	한의학이 적용되는 질환		21 (4.4%)	
	한의학의 문제점		10 (2.1%)	
	한의학의 치료효과		6 (1.3%)	
의료제도 속에서의 한의학	한의학계 서양의학의 갈등(의료기기, 침, IMS, 한약 등)		25 (5.2%)	
	한의학계 서양의학의 협력, 협진		24 (5.0%)	
	한의학 관련 의료제도		22 (4.6%)	
기타		14 (3.0%)		14 (3.0%)

* '기타'에 속하는 인터뷰 대상으로는 간호조무사, 보완대체요법 치료사 등이 있음.

† 한 사람당 질문의 개수가 다양했으므로 총 질문의 개수는 477개임.

4. 한의학에 대한 경험

과거 한방치료 경험과 치료 외의 경험을 언급한 학생은 전체 학생 중 각각 51명(18.0%), 23명(8.1%)으로 많지 않았지만 과거 한의학 치료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한 학생이 47.1%로 가장 많았다. 치료 외의 경험을 언급한 학생 중 경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39.1%)’를 제외하면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학생이 30.4%로 많았다 (Table 6).

5. 의대 입학 전, 수업·과제 전, 수업·과제 후 태도

의대 입학 전의 태도를 언급한 학생은 21명으로 많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학생

이 11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수업 및 과제 전 태도를 언급한 학생은 130명이었고 그 중에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학생이 7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수업 및 과제 후 태도를 언급한 학생 190명 중에서는 ‘중립적’ 태도를 보였던 학생이 101명(53.2%), ‘긍정적’ 태도를 보인 학생은 59명(31.0%)이었다(Table 6).

6. 입학 전, 후 및 수업·과제 전, 후의 태도 변화

태도 변화는 두 시점에서의 태도가 명확하게 언급된 과제만을 대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대상 수가 많지 않았다. 입학 전, 후의 태도 중 하나라도 언급한 학생 127명 중에서 그 태도의 변화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학생은 총 14명이었으며 입학 전, 후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한 학생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업·과제

Table 6. Past Experienc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Attitude Change towa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N = 283

	언급 없음	언급 있음	언급한 대상 중 퍼센트(%)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판단불가		
과거 치료 경험*	232 (82.0%)	51 (18.0%)	5 (9.8%)	3 (5.9%)	24 (47.1%)	19 (37.2%)		
치료 외 경험†	260 (91.9%)	23 (8.1%)	7 (30.4%)	3 (13.0%)	4 (17.4%)	9 (39.1%)		
의대 입학 전 태도‡	262 (92.6%)	21 (7.4%)	4 (19.0%)	3 (14.3%)	11 (52.4%)	3 (14.3%)		
수업·과제 전 태도	153 (54.1%)	130 (45.9%)	71 (54.6%)	12 (9.2%)	20 (15.4%)	27 (20.8%)		
수업·과제 후 태도	93 (32.9%)	190 (67.1%)	10 (5.3%)	101 (53.2%)	59 (31.0%)	20 (10.5%)		
	언급 없음	언급 있음§	부정 변화	변화없음			긍정 변화	판단 불가§
				계속 부정	계속 중립	계속 긍정		
입학 전후 태도변화	156 (55.1%)	127 (44.9%)	9 (7.1%)	3 (2.3%)	1 (0.8%)	1 (0.8%)	0 (0.0%)	113 (89.0%)
수업·과제 전후 태도변화	91 (32.3%)	192 (67.8%)	1 (0.5%)	7 (3.7%)	5 (2.6%)	18 (9.4%)	69 (35.9%)	92 (47.9%)

* 과거 치료 경험은 과거에 치료한 경험이 있을 때 치료 효과에 대한 언급을 기준에 따라 나눈 것임.

† 치료 외 경험은 한의학에 대한 책, 논문, 광고, 지인들의 말 등에 의한 경험을 의미.

‡ 의대 입학 전 태도는 의대 입학 전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현을 쓴 경우에만 ‘언급있음’으로 간주.

§ 전, 후의 두 가지 시점 중 태도를 언급한 시점이 하나 이상이면 ‘언급있음’에 포함시켰고, 한 시점에서의 태도만 언급된 경우는 변화를 알 수 없었으므로 ‘판단불가’에 포함시킴.

전, 후의 태도를 언급한 학생 192명 중에서 그 태도의 변화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학생은 총 100명이었으며 수업·과제 전, 후의 태도가 부정에서 중립, 중립에서 긍정으로 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학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수이긴 하나 긍정에서 중립으로 ‘부정적인 변화’를 보인 학생이 1명,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 7명 있었다. 수업·과제 전, 후의 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69명의 수업 연도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2010년은 140명 중 42명, 2011년은 143명 중 27명으로 2010년도에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학생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29$). 학제별, 과제 유형별로는 수업·과제 전, 후의 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학생 비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6).

IV. 고 찰

본 연구는 의대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그 변화에 있어 한의학 수업과 과제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과제물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의학 관련 교육은 의대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논문 읽기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주로 자신의 관심 분야와 경험에 따라 논문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이 검색한 한방 치료 요법은 침(56.0%)과 한약(11.4%) 순으로 많았다. 국내 의대생에 대한 선행연구¹⁰⁾에서 침 치료에 대한 인식은 79.7%, 한약치료에 대한 인식은 54.5%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¹¹⁻¹³⁾에서 의대생들이 CAM 분야 중 침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논문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의사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한의학 처방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질환으로 근육통이 73.8%로 가장 높았고¹⁴⁾ 한·양방 협진 시 효과적 질병 군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결과들과 유사하다.¹⁵⁻¹⁷⁾ 학생들은 논문 선택 시 RCT나 체계적 문헌고찰 등의 근거 수준이 높은 논문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침과 한약을 비롯한 한방 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

로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의대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과제를 한 학생집단은 논문 읽기과제를 한 학생집단보다 한의학 주제를 선택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21$). 인터뷰 대상 전체의 85.6%가 한의사 및 한의대생이었는데 이는 한의학이 우리나라 제도권 의학이기 때문에 CAM 종사자보다 한의사나 한의대생을 접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뷰 질문 범주 중 ‘한의학의 현실(34.1%)’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고 이 범주에는 ‘한의학의 교과과정’, ‘한의학을 선택한 이유’, ‘한의학의 미래발전, 전망’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질문의 대부분이 ‘한의학 교과과정’ 등 기본적인 것이 많았는데 이는 한의학계와 의학계 사이의 교류와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류의 부재와 무관심이 한의학계와 의학계 사이에 갈등을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양 의료계 간 교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위 범주에서 살펴보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비교(15.7%)’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질문의 내용은 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나, 서양의학에 비해 한의학이 가지는 장점 및 단점에 대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질문은 ‘한의학 연구와 EBM(8.8%)’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는 의대생들이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의학이 EBM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의대생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한방치료 경험 및 치료 이외 경험을 언급한 학생이 소수여서 과거 경험과 태도 변화의 관계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입학 전 한의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11명의 학생들 중 7명은 한방 치료에 효과를 보거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음을 볼 때, 효과적인 한방 치료 경험이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입학 전 한의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4명의 학생들은 한의학적 치료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 한의대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 서양 의학적 사고로 인해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였다. 한방치료 경험과 치료 이외 경험을 표현한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해보니 부정적인 경험을 한 학생은 긍정적인 경험을 한 학생보다 수업 및 과제 이후에도 대부분 기존 태도를 유지하였다. 부정적인 경험을 가졌던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들에 비해 수업 및 과제가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낮았고,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한의학에 대한 태도 형성에 더 강한 영향을 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각 시점에서 의대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입학 전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52.4%)이 많았지만 수업 및 과제 전(입학 후)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54.6%)이 가장 많았고, 수업 및 과제 후에는 중립적인 태도(53.2%)와 긍정적인 태도(31.1%)를 보이는 학생이 다수였다. 의대에 입학한 이후 의대교육을 받으면서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한의학 관련 주제로 수업 및 과제를 한 이후에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수업 및 과제가 의대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학생 개인별 태도 변화에서 다음과 같이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난다.

입학 전, 후에 한의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 학생 9명 중 8명은 의대에 진학한 후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의대와 의대 진학 사이에 고민을 했던 학생들조차 의대 입학 이후 한의학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언급하였다. 입학 전에는 한의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더라도 “의대에 들어온 뒤 본격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거나 “의대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졌다.”는 내용들을 통해 의대에서의 교육이나 교수, 선배 등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수업 및 과제 전에 한의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중 일부가 “사실 의과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주변 사람, 교수님들의 수업을 통해 듣는 한의학은 과학적이지 못한, 한약에 포함된 많은 steroid, 침 맞고 infection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뿐”, “교수님들의 영향 등으로 한의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판적인 의식만을 갖고 있었다.”, “6년간 양의학을 위주로 한 교육을 받고 evidence-based 된 의학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한의학이나 다른 대체의학을 등한시하고 사실 아무런 근거 없는 야매성 치료라고 무시했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이를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의대 신입생들은 CAM에 대해 열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만 EBM교육이 강화되면서 1, 2학년 때에 학생들은 CAM에 회의감을 느낀

다. 3, 4학년 때에는 EBM교육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은 CAM이 과학적인 서양의학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였다.¹⁸⁾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의대교육과정이 한의학이나 CAM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강화시켰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었다.

반면, 수업 및 과제 전, 후 태도 변화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학생을 제외하고는 한의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변화(36.5%)를 보이거나 계속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학생(9.4%)이 많았다. 학제별로 비교하였을 때, 다른 전공 경험이 있는 본과 편입생이 예과 입학생보다 다른 학문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이는 한의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12$). 학생들의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의학 하면 뜰구름 잡는 소리를 하며 양의학에 비해 비과학적이며, 쓰는 약은 스테로이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수업 및 과제를 통해 이런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막연히 한의학에 대해서 느꼈던 비과학적일 것이라는, 또는 인체에 오히려 해로울지도 모른다는 등의 선입견을 가졌던 것이 부끄러웠다.” 등의 표현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 및 과제로 인해 한의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오해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의 협력관계 및 보완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표현도 많았다. “서양의학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한의학에서 채워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서로 자신의 분야만이 옳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많이 하여 서로의 장점을 취해야겠다.”, “무조건 배척하는 것보다 서로 돕고 노력해 나가야겠다.” 등이 그러한 표현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의학 교육 후 65%가 한의학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국내의 의사 대상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며,⁷⁾ CAM 강의가 의대생과 레지던트의 CAM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⁹⁾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학 관련 수업 및 과제가 의대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유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반면, 과제 전후에 한의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거나(0.5%)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학생들(3.6%)도 소수 있었는데, 이들은

선택한 논문의 연구방법이나 수준이 미흡한 경우, 연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거나 인터뷰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우였다. 이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수업보다는 과제 자체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의대교육과정에서 한의학 수업 및 과제가 한의학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한의학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한의학 관련 교육시간의 증대와 교육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한의학 및 CAM 교육은 4년~6년의 의대교과과정에서 평균 13시간(1~36시간)이며 학교마다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⁴⁾ 그 중 실제 한의학 강의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며 한의학에 대한 강의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존재한다.¹⁹⁾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학 및 CAM의 교육시간이 총 2~160시간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²⁰⁾ 또한 본 연구에서 “한의학 수업 3시간을 듣고 한의학에 대해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수업 몇 시간, 인터뷰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본과 4학년에 한의학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라는 학생들의 의견에서도 교육시간과 기회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의학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와 태도형성을 위해서는 강의시간을 늘리고 교육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의과대학에서 한의학 및 CAM 교육이 연속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의대교육과정 중 CAM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노출될 경향이 많은데도 학생들이 CAM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은 1학년부터 매 학년마다 이루어진 총 8시간의 CAM 교육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만하다.⁸⁾ 셋째, 의과대학에서 한의학 교육방법,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을 시행하는 강사의 육성도 중요하다. 미국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CAM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시연과 실습 등을 통한 다양한 강의를 원하고 있었다.¹⁸⁾ 현재 의대에서 이루어지는 한의학 및 CAM 교육은 개론적 내용의 일반 강의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관

심정도를 반영하기 힘들다. 추후 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실습, 시연 등과 연계된 선택 과정 도입, 의대생들을 위한 한의학 교재 개발 등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주요인 중에 하나가 객관적인 근거 부족이라는 국내외 선행 연구 결과는^{4,10,15,18)}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의대에서의 한의학 관련 교육은 한의학의 현대연구동향과 성과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의대에서 강조하는 EBM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선행연구에 의하면 CAM 종사자에 의한 강의가 오히려 CAM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생성시키기도 하였고 의대생들은 의사이면서 CAM 전문가인 강사를 단순한 CAM 종사자인 강사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18,21)}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 양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화된 설문조사가 아닌 기존 과제물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고 그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과제 공지 시 소감에 대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가감 없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성적에 반영되는 과제물이라는 특성상 본인의 실제 의견을 숨기고 한의학에 대해 우호적으로 기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이 일개 의과대학의 본과 4학년 학생으로 한정되었고, 한의학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과의 비교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의학 관련 교육 후 태도 및 인식 변화에 대해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또한 자유로운 형식의 과제물을 연구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정형화되지 않은 생생한 답변과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향후 본 과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의대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학 교육이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 연구가 한의학 교육 전과 후에 걸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의대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한의학 관련 수업, 과제가 태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년간 서울 모 의대에서 한의학 강의를 수강한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과제물을 통해 학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그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의대생들은 의대 진학 이후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의대 교육과정의 내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 수업 및 과제 전, 후의 의대생들의 태도 변화를 평가해 보았을 때, 한의학 관련 교육 및 과제가 의대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의학 교육은 의대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태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한의학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없애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양방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대에서의 한의학 교육기회의 확대와 효과적인 한의학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Wetzel MS, Eisenberg DM, Kaptchuk TJ. Courses involv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t US medical schools. *JAMA*. 1998;280:784-787.
2. 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U.S. medical schools teaching selected topics: 2008 LCME Part II Annual Medical School Questionnaire, http://services.aamc.org/currdir/section2/04_05hottopics.pdf. Accessed January 10, 2009.
3. Varga O, Marton S, Molnar P. Statu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European medical schools. *Forsch Komple-mentmed*. 2006;13:41-45.
4. Kim DY, Park WB, Kang HC, Kim MJ, Park

- KH, Min BI, Suh DJ, Lee HW, Jung SP, Chun MS, Lee S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undergraduate medical curriculum: A survey of Korean medical schools. *J Altern Complement Med*. 2012;18(9):870-874.
5.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Integrated Health(NCCIH). Complementary, Alternative, or Integrative Health: What's In a Name? <https://nccih.nih.gov/health/whatis scam>. Accessed February 3, 2015.
6. 이응세.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1999.
7. 한경연, 구현경, 윤영주. 한양방 협진을 위한 한의학 교육에 대한 의사 한의사의 인식조사. *대한한의학회지*. 2013;34(1):160-169.
8. Lie D, Boker J. Comparative survey of CAM attitudes, use,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 among medical students, residents & faculty. *BMC Med Educ*. 2006;6:58.
9. Cook DA, Gelula MH, Lee MC, Bauer BA, Dupras DM, Schwart A. A Web-Based Course on Complementary Medicine for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Improves Knowledge and Changes Attitudes. *Teach Learn Med: An International Journal*. 2012;19(3):230-238.
10. 허남우, 정승아, 김선재, 목나래, 박해원, 신현규. 의대생들의 한의학에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인식조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3;17(1):107-116.
11. Natalie Taylor, Anona Blackwell,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amiliarization: What's happening in medical Schools in Wale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0;7(2):265-269.
12. Nicolao M, Tauber MG, Marian F, Heusser P. Complementary medicine courses in Swiss medical schools: Actual status and students' experiences. *Swiss Med Wkly*. 2010;140(3-4):44-51.
13. Loh KP, Ghorab H, Clarke E, Conroy R, Barlow J. Medical students' knowledge, perceptions, interest in complementary medicine. *J Altern Complement Med*. 2013;19(4):360-

- 366.
14. 이은주, 박한솔, 이소영, 배다정, 이탁근, 신현규. 대학 부속병원 근무 의사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26(5):773-777.
 15. 김숙경, 문소영, 김범수, 윤영주. 한의학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3;17(3):31-46.
 16. 민현주, 류지선, 윤영주, 한양방협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변화.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2;16(1):15-29.
 17. 정인숙, 임병목, 이원철, 한양방협진에 대한 의·한의·간호대생의 태도비교.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0;14(1):25-35.
 18. Lie D, Shapiro J, Pardee S, Najm W. A focus Group Study of Medical Students' Views of an Integrat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Curriculum: Students Teaching Teachers. Med Educ Online. 2008;13:1-13.
 19. 이순남. 국내 의과대학 보완의학 교육 실태와 교육과정 개발현황. KAMC 의학교육정책포럼자료집. (사)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2010. 10.22.
 20. 전민호. 미국과 캐나다의 보완대체의학 교육현황과 향후 의과대학내 교육과정 도입방안. 대한보완대체의학회지. 2005;2(2):237-262.
 21. Quartey NK, Ma PH, Chung VC, Griffiths SM,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education for medical profession: systematic review.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2;2012:656812.